국가대표 궁사들 광주로 집결…대통령기 대회 '팡파르'

제44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

21~26일 광주국제양궁장서 전국 600여명 열전
광주여대·광주시청·광주은행팀 등 금메달 '조준'
사전 대회서 초등 400명…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안산

오예진

이수연

대한민국 양궁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44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양궁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선수 600여명이 참가해 6일간 열전을 펼친다. 선수들은 리커브와 컴파운드 종목에서 시·도대항, 개인전과 단체전, 거리별 경기 등을 치르며 국내 최고 궁사의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대통령기 전국양궁대회는 국내 양궁계 최고 권위의 전통 있는 대회로 꼽힌다. 2017년부터 광주에서 개최됐으며, 2024년 광주국제양궁장 확장 공사로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프레대회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들과 차세대 국가대표를 꿈꾸는 유망주들이 대거 출전해 수준 높은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를 대표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산·최미선과 오예진(이상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이승윤(광주 남구청)을 비롯해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 강채영·이윤지(이상 현대모비스) 등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광주 선수단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일반부에서는 이가영이 활약하는 광주시청이 메달 사냥에 나서며, 대학부에서는 이수연을 필두로 한 광주여대 여자부와 조선대 남자부가 출전한다. 고등부에서는 광주체고 선수단이 금빛 과녁을 정조준한다.

대회는 21일 오후 3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22~23일에는 전종별 리커브 거리별 경기가 열리며, 24일 개인전 64강부터 4강전, 25일 혼성단체전과 단체전 64강~4강전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개인전과 단체전 결승전 및 시상식이 열린다.

대회가 열리는 광주국제양궁장은 세계양궁연맹(WA)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 규격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선수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 운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대회 관계자는 "국가대표 선수와 유망주들이 함께하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양궁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무대"라며 "양궁 팬과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에 앞서 19일부터 20일까지는 제37회 전국 남·여 초등학교 양궁대회도 열린다. 전국 초등학교 선수 4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광주 지역 유촌초, 성진초, 염주초, 두암초, 문산초, 삼정초 등 6개 팀이 출전해 미래 한국 양궁을 이끌 꿈나무들의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초등대회와 대통령기를 통해 1000여명이 광주를 방문하는 만큼,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해 대통령기 양궁대회 전경. 사진제공=광주양궁협회

광산구 장애인생활체육 한마당 '화합의 장'

'제5회 광산구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 한마당'이 17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김명수 광산구의회를 비롯한 광주시의원, 광산구의원,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임원, 장애인 시설 및 단체 관계자, 18개 장애인 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인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첫 대회 당시 300여명이 참가한 데 이어 매년 규모가 확대되며 지역 대표 장애인 생활체육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17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광산구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공굴리기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참가자들은 상생·혁신·소통·화합 4개 팀으로 나뉘어 입장식을 진행한 뒤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파도타기와 공굴리기 등 팀 대항전을 비롯해 훌라후프 릴레이, 인간컬링, 휠체어 경기 등이 펼쳐졌으며 참가자들은 함께 웃고 응원하며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다. 주식회사 이파리, 오텍캐리어㈜, 동진기업, 새마을금고, 광주장애인경제자유구역 기업협의회 등 20여 개 기업과 단체가 후원에 동참했다.

냉장고와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쌀 242포, 상추 100박스, 콩나물 200박스 등 다양한 물품이 경품과 시상품으로 제공됐다.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후원도 이어졌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3기 발전위원회가 1000만원, 광산구장애인체육회 경제계 임원진이 2000만원을 기탁했으며, 창립 20주년을 맞은 성일축산도 500만원을 후원했다. 총 3500만원의 후원금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복지 증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광산구장애인체육회는 행사에 앞서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박성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12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박균택 국회의원 표창으로 강현종 제이케이베스트 대표 등 10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 기업과 단체가 한마음으로 모아주신 따뜻한 후원이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변함없는 나눔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후원자들의 정성 덕분에 오늘 화합의 마당이 더욱 빛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여대 체육관서 장애인·종사자 500여명 참가
후원금 3500만원·물품 기부 등 나눔 의미 더해

여수, 한·일 핸드볼 클럽 챔피언결정전 개최

20일 남녀 우승 4팀 참가…스포츠 도시 여수 위상 강화

여수시는 오는 20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2026 한·일 핸드볼 클럽 챔피언결정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 일본 프로리그 남녀 우승팀 총 4개팀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교류대회로, 양국 정상급 클럽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일본 관광객과 핸드볼 팬들에게 여수의 관광자원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함께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기간 참가 선수단과 관계자, 국내외 관람객들이 여수를 찾으면서 숙박·음식·관광 등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일 스포츠 교류 확대와 국제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한·일 클럽 챔피언결정전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해양관광도시 여수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뜻깊은 무대다"며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통해 스포츠와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국제 스포츠도시 여수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생활체육 국학기공인, 광주서 기량 겨룬다

20일 5·18기념문화센터서 '생활체육 전국국학기공대회'

전국 국학기공 동호인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축제가 광주에서 열린다.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국학기공대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 개회식은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대한국학기공협회가 주최하고 대한국학기공협회와 광주시국학기공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았다.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학기공 선수단과 동호인 등 80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경기는 64세 이상부, 63세 이하부, 18세 이하부, 최강부(개인전)로 나뉘어 진행되며, 단체전과 개인전 종목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통 스포츠인 국학기공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 행사다. 참가자들은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와 환경의 가치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ESG 실천 프로그램과 아나바다 장터, 전통기공 체험, 제기차기와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행사가 운영된다. 특히 지구시민연합과 협력해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또 대한국학기공협회는 지난해 열린 제1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국학기공대회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포상금 400만원 전액을 이번 대회 지역 선수 시상금으로 환원해 지급한다. 생활체육 발전과 지역 선수 격려를 위한 의미 있는 나눔이라는 평가다.

이기우 대한국학기공협회장은 "국학기공을 통해 건강 증진은 물론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나눔과 상생의 정신까지 함께 실천하는 뜻깊은 생활체육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 동호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투타 겸업 덕수고 엄준상 MLB 애리조나 150만달러 계약

투타를 겸업하는 유망주 엄준상(덕수고)이 한국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를 건너뛰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했다.

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구단은 17일(한국시간) 엄준상과 계약금 150만달러(약 22억6000만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엄준상의 에이전시에 따르면, 엄준상은 애리조나의 홈인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를 이날 방문해 토리 루벨로 감독, 빅리그 선수들과 인사하고 공식 입단 기자회견을 했다.

엄준상은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이다. 좋은 기회를 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구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배우겠다. 한 단계씩 성장해 빅리그 무대에 서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엄준상이 안정적인 수비와 넓은 수비 범위, 강한 송구를 갖춘 유격수 유망주로, 장타력과 콘택트 능력을 겸비해 공수 양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MLB닷컴은 엄준상이 견고한 수비 실력을 갖춘 유격수이면서 투수로도 활약했다며 최고 시속 153㎞, 평균 시속 146~148㎞의 빠른 볼과 최고 시속 140㎞ 슬라이더, 120㎞대 스플릿 핑거드 패스트볼을 던진다고 소개했다.

키 184㎝의 우투우타 선수인 엄준상은 고교 야구 명문 덕수고에서 3년간 타자로 통산 타율 0.341, 홈런 7개, 타점 70개를 남겼다. 투수로는 지난해와 올해 2년간 5승 3패, 평균자책점 1.19를 올렸다.

53⅓이닝 동안 삼진 52개를 잡고 볼넷은 6개만 허용했다. 연합뉴스